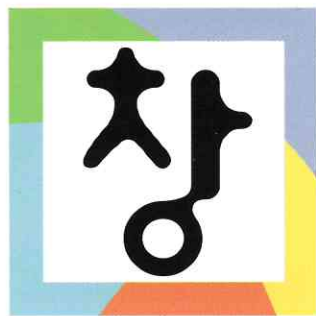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2012 8월호

특집 :

“한국인 정체성 확인,
모국의 정(情) 느꼈다”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사업
2012 GLOBAL KOREAN YOUTH NETWORK
10. July (Tue) ~ 16. July (Mon) 2012 재외동포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아우름의 부드러운 춤사위 승무(僧舞)

한국춤의 부드러운 곡선은 화합과 아우름을 지향하기에 아름답다. 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차이가 없는 세계를 일러준다.

종교적 염원이 담긴 승무 춤사위에는 한국적인 심성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다.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흰색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순수함과 숭고함을 은유하듯 말한다. 살포시 들고 고이 접어 내미는 춤사위는 마음을 억누르는 절제의 미를,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보는 버선발은 동적인 쾌활함과 긍정적인 밝음의 자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국춤의 백미로 불리는 승무는 가장 한국적인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된 예술성이 높은 춤사위다.





목차 2012 8월호

- 2 **한국의 일** 아우름의 부드러운 춤사위 승무(僧舞)
- 3 **목차**
- 4 **특집** "한국인 정체성 확인, 모국의 정(情) 느꼈다"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한글학교가 앞장선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워싱턴서 30차 학술대회
- 12 **한민족 공감** "위기 때 기업투자 늘이고 대중소기업 상생 필요하다"
李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주관
- 14 **포커스** "한글 교수법 강화에 주력, 모국 체험이 수업에 큰 도움"
CIS·조선족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 18 **한글학교 탐방** 이민자의 정착 돕고 자녀 정체성도 키우는
'로테르담 한인학교'
- 19 **한상칼럼** 행복이 성공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20 **동포문학** 작품성 높아진 동포문학가의 등용문
'14회 재외동포문학상' 응모 1천206편 중 수상작 30편 선정
- 22 **OKF 뉴스 광장** 동남아 한상대회·아시아한인 총연합회대회 발전 모색 외
- 24 **나의 살던 고향** 일상의 번잡은 잊어라 '담양의 여름'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에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청소년·대학생이 모국 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모국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2 GLOBAL KOREAN YOUTH NETWORK

2012 세계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사업

10. July(Tue)~16. July(Mon) 2012 재외동포재단 한국YMCA한국연맹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모국 연수에 나섰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세계 53개국의 동포 청소년 40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1차 개막식을 개최했다.

“한국인 정체성 확인 모국의 정(情) 느꼈다”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으며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대회는 1차 청소년, 2차 대학생으로 나뉘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국을 체험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 차세대들의 '한민족 정체성 심어주기'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2012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가 성황리에 열렸다.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열린 1차 연수에는 세계 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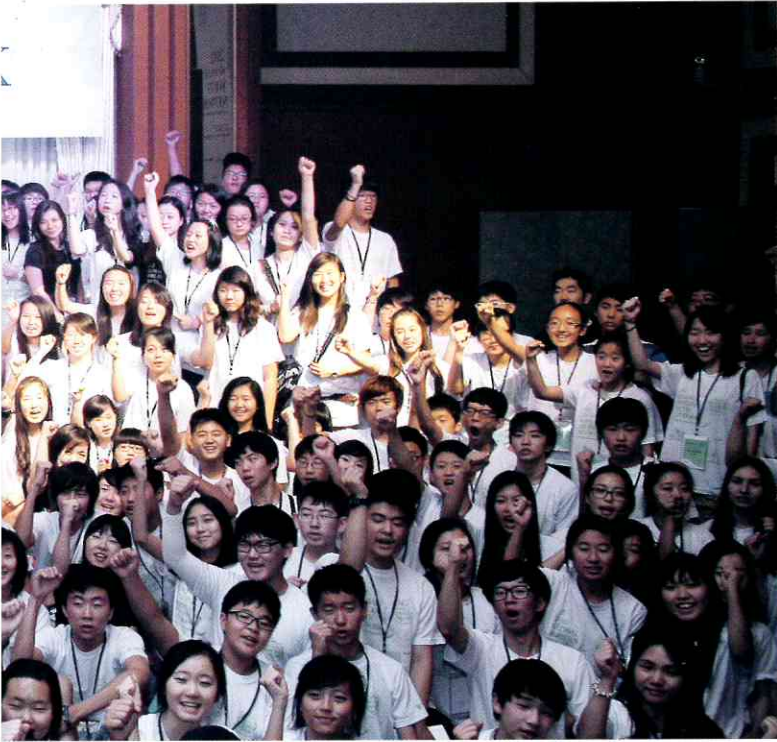
국에서 한인 청소년(중·고등학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에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국내 청소년·대학생 29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동포 대학생 268명이 참가하는 2차 연수가 서울과 지방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차세대 모국연수 사업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대학생의 민족 유대감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한국의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들이 모국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모국연수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을 본부로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학생들과 만남 행사도

1차 연수 참가자들은 춘천, 속초, 대전, 천안, 안동, 영천, 구미, 전주, 8개 지역의 도시와 마을로 나뉘어져 농촌 일손 돕기, 일일



모국연수에 참가한 동포 대학생들이 서울 탐방의 일환으로 경복궁, 광화문, 청계천 등을 둘러보았다.

학교·홈스테이 체험을 하며 모국의 정취를 흠뻑 맛보았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서먹서먹함을 느낀 것도 잠깐, 유창한 우리말로 때론 외국어로 또는 손짓발짓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으로 농어촌 체험과 홈스테이를 함께 하면서 모국의 정을 흠뻑 느끼며 어느새 '지구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7월 11일 지방으로 출발한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지방출신 한국 학생들의 안내로 농촌과 도시를 둘러보았고 셋째 날에는 홈스테이도 했다. 홈스테이는 1가정에 2명의 동포학생이 참여를 했는데 '또 다른 가정'을 만든 것처럼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농촌 일손 돕기 체험에 나선 참가자들은 감자, 토마토, 오이, 상추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기도 하고 옥수수나 감자를 구워먹기도 했다. 속초에서는 '어부체험'의 일환으로 고깃배를 타고 나가 직접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저녁에는 체험마을에서 준비한 바비큐파티가 열렸다. 낮 동안 일손을 돕는 등 생활 체험을 하고 물놀이를 더위를 식히기도 했던 참가자들은 '신토불이'로 차려진 푸짐한 밥상에 둘러 앉아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재단 관계자는 "장마 기간이지만 신기하게도 비가 피해가서 프로그램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됐다"며 "모국의 따뜻한 품이 참가자들을 반겨준 덕분"이라고 기뻐했다.

13일 오전에는 국내 참가 학생의 학교를 방문해 교정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교실을 방문한 동포 학생들은 학생들과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했다. 학생들은 공부, 이성 친구, 대학 진학 등 비슷한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오후에는 현지 학생의 집에서 한국 가정을 체험하는 '홈스테이'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1~2명씩 짝을 지어 학생 집을 방



모국 체험에 나선 참가자들이 '한국말 배우기' 게임을 하며 한국의 지명을 배우고 있다.

문했다.

홈스테이 가정의 한국 학생의 안내로 시내 곳곳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보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14일 농촌 체험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박물관, 서대문형무소 등을 돌아보며 도시탐방을 했다. 조별로 나눠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로 정해진 장소를 찾아보며 근현대사의 현장을 방문해 역사를 배웠다.

15일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친환경 녹색 한국, 녹색 시민, 어머니 지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린코리아 아트바이크'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했다.

일주일간의 모국연수를 마치는 폐회식에서 김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모국연수 수료증을 나눠주며 "모국연수를 통해 여러분은 또 하나의 조국을 가슴에 품게 됐을 것"이라며 "새로 사귀 친구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당부했다.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한인청소년들은 '놀이와 축제'라는 형식의 모국연수를 통해 전통문화를 비롯해 모국을 체험하고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를 격려했다. YMCA는 매년 동포재단과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농촌체험'

2차 모국연수는 동포 대학생들을 초청해 모국연수를 진행했다. 대학생 모국연수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원장 김종섭)이 재외동포재단의 위임을 받아 주관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7월 24일부터 6박 7일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서울 탐방을 비롯해 지방에서 모국을 체험했다.

24일 저녁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서는 국방부 임관반 국방정책실장의 기조 강연을 비롯하여 퓨전 국악 공연, 비보이 공연, 전통 무용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환영사에서 "연수를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정만 경희대학교 부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통해모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학생들은 25일 서울 탐방 활동을 통해 서울에서 유

명한 각 지역을 돌아보며 미션을 수행하며 UCC를 제작하기도 하고, 잠실야구장에서 두산과 LG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의 인기 스포츠인 야구와 응원 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연천의 초성김치마을 등 5개 지역과 여주 해바라기 마을 등 4개 지역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나 직접 농산물을 수확해 보고, 김치 만들기와 천연 염색, 전통놀이 및 먹거리 체험 등 전통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여주군 해바라기 마을에서 참가자들은 전형적인 한국 농촌마을을 체험했다. 마을에 도착하여 학생들이 처음 대면한 것은 마을체험 위원장의 구수한 환영사와 작고 아담한 마을의 수려한 풍광이었다.

감자와 옥수수를 캐서 썰 먹기도 하고 근처 남한강에서 래프팅도 했다. 저녁에는 마을 근처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측하며 자연을 느끼기도 했다. 인절미 만들기 떡 메질에 학생들이 하나 둘 나서면서 힘자랑도 펼치고 메질하는 요령도 배웠다. 땀 흘린 메질 후 끈득해진 인절미에 고명을 묻혀 한 입에 털어넣으며 오물오물 맛있어 했다.

학생들은 잠깐의 틈만 나면 게임을 하면서 친밀감을 높여갔다.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게임을 하며 시간가는 줄 몰라 했다.

농촌체험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참가자들은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K-POP과 한류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경희대 학생들과 함께 10개 분과로 나눠서 분임토의를 펼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모국연수가 단순히 답사와 관광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국을 느끼고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가자 가운데 리더와 스태프를 선발해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참여하는 것을 유도한 것이다.

참가 학생들은 대부분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

- 1 속초 지역으로 농촌 체험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속초 하도문 섬채마을에서 썬채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 2 경북 영천의 별빛마을에서 참가자들이 들꽃을 이용한 천연 염료를 이용하여 티셔츠 염색 체험을 하고 있다.
- 3 경기도 여주군 해바라기 마을로 농촌체험을 온 참가자들이 인절미 만들기 떡 메질 체험을 하고 있다.
- 4 일주일간의 모국연수를 통해 흠뻑 정이 들은 참가자들은 폐회식에서 특별한 아쉬움에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 5 폐회식에서 동포재단 임직원, 리더 및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리랑'을 부르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모국연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대회 마지막 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그린 코리아 아트바이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각국서 온 동포친구들과 사귄 수 있었던 값진 시간”

■ 청소년(중고생)



장예영 (중국)

천안에 있는 한국 친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시내 탐방을 하기도 했다. 각국에서 온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체험을 하면서 해외 어디에 살아도 모두 뻗속까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유 나탈리아 (러시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처지가 같아서인지 금세 친해졌다. 전 세계에서 참가해서인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의 초청과 YMCA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다. 모국연수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 오래 교류할 생각이다.



이진원 (일본)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때로는 우리말로 때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다. 고려인 친구들을 비롯해 우리말이 서툰 학생들도 많았다. 전 세계 곳곳에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좀 더 글로벌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우리말과 영어를 더 갖고 닦아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문소희 (우간다)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게 친해진 것이 신기하다. 같은 동포라는 친밀감 때문인가 같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친구들과의 교류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김태수 (엘살바도르)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모국연수를 통해 친구를 많이 사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홈스테이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친절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각국에서 온 동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슷한 고민과 관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멋진 체험이었다.

“한국은 다이내믹한 나라... 조국 발전상에 가슴 뿌듯”

■ 대학생



전향준 (중국, 북경외국어대)

경기도 연천군 옥계마을에서 농촌 체험을 했다. 날씨가 더웠지만 옥수수 따기 수제비 만들기, 캠프파이어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 연수를 통해 지구촌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다. 앞으로 통역사가 돼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싶다. 서울 탐방에서 신촌과 홍대 거리를 둘러보며 젊음의 거리의 열기를 느꼈다. 한국이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느꼈던 일주일이었다.



경광준 (브라질, 브라질USP 대학)

브라질은 아침식사로 빵을 먹는데 일주일 동안 쌀밥에 된장국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중간에서 영어 통역을 해주며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어울리다보니 어느새 친구가 됐다. 대학을 마치고는 한국으로 유학을 계획이다. 여주 도토리마을에서 농촌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대에 따뜻한 모국의 정을 느꼈다.



김수정 (미국, 템퍼대학)

한인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일주일이 너무 짧다고 느낄 정도로 즐거운 체험이었다. 서울과 농촌을 오가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생겼다. 막연히 부모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뿌리라는 것과 평생 한국계로 살아가야 하는 내 조국의 발전된 모습이 자긍심을 가지게 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는 메일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기로 했다.



조안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외국어대)

개회식에서 역동적인 춤과 멋진 마술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고려인 4세라 한국어가 서툴렀는데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배우 생각이다. 한국은 미용 관련 분야가 프랑스 못지않은 선진국이다. 메이크업 분야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계획 중이다. 한국의 산천은 너무 아름답다. 특히 서울은 너무 깨끗해서 모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



박영재 (미국, 코네티컷 대학)

초성 김치마을에서 김치와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거주국에서 한글학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워왔다.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각국에서 온 친구들 역시 모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동했고 어디에서든 한국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살고 싶다. 이번 연수를 기회로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송지연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낮을 가리는 성격인데 이번 모국연수를 통해 스스로없이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이 기쁘다. 자전거를 타고 남한강 유역을 달리기도 했고 토마토 수확과 김치 만들기가 기억에 남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스포츠인 야구 응원도 정말 짜릿했다. 다행히 응원한 팀이 이겨서 더 신났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국제변호사가 돼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이지훈 (미국, 콜로라도 대학)

한인신문에 모국연수 공고가 난 것을 보고 부모가 지원을 권유했다. 사실 한국 방문도 처음이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해서 무척 망설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모국연수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다양한 체험을 했다. 농사일 체험과 물놀이 등 모국의 산천이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진다.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다이앤 벨리 (프랑스, 폴사바치대학)

아버지는 프랑스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방학을 이용해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모국연수를 알고 신청했다. 주변에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성장했는데 이곳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게 돼서 즐겁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 만들기를 체험해 본 것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부족한 한국어 공부를 앞으로 더할 생각이다. **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7월 27일 워싱턴D.C. 하이얏트 리젠시 레스튼호텔에서 미국내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0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한글학교가 앞장선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워싱턴서 30차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D.C. 외곽 하이얏트 리젠시 레스튼호텔에서 30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NAKS는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돼 있고 산하에 953개의 한글학교가 있으며 전체 교사수는 7천 명, 재학생 수는 8만 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이들 한글학교는 주로 교회나 성당, 한인회 등이 주말에 운영한다.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내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매년 여름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여름 휴가기간을 이용해 1천 달러 이상 사비를 들여 오는 만큼 한국어 교육 및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동포자녀 정체성 심어주는 한글학교

학술대회 첫날인 26일에는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비롯해 ‘미국의 한반도정책’, ‘한국학교 입양아 교육’, ‘16회 SAT

II 한국어모의고사 평가’ 및 종이접기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자 오후 6시에는 그랜드볼룸에 다 함께 모여 서로 소개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7일 오전 9시에는 개회식이 열렸다. 심용휴 NAKS 총회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동포 자녀의 한국어와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

니한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어 세계화 운동에도 앞장서는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하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역사·문화를 교육하고 정체성을 찾아주는 교사 여러분이야말로 등불과 같은 존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더 나은 한글교육을 위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2일 미국순방길에 올라 휴스턴 한인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고 델러스, 애틀랜타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NAKS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은 기조강연에서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잡아 친숙한 목소리와 귀에 쫄쫄 들어오는 화법으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려 21개의 특강과 세미나가 진행됐다. ‘재미있게 공부하는 맞춤형 수업’, ‘이중 언어과정의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만들기’와 같이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NAKS는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돼 있고 산하에 953개의 한글학교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특강이 주를 이뤘고, 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각자 관심사에 따라 강의실을 찾아다녔으며 강의시간이 끝나고서도 삼삼오오 모여 못다 한 대화를 계속 했다.

'함께 성장하는 한국학교'를 주제로 열린 한글학교장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70여 명의 교장이 참여해 한글학교의 문제점을 조별 토론하고,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재정부족과 교사수급의 어려움, 적절한 수준의 교재가 없다는 점을 공통된 문제점으로 꼽았다.

차세대 '나의 꿈 말하기대회' 성황

최영진 주미 대사가 주최한 만찬 전에는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 학교 21곳과 1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교사 69명에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35년 근속 공로상을 받은 오 가타리나(72·여) 씨는 "꾸준한 성격과 책임감,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요새는 교포사회

에 '영어만 잘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크고 한국드라마와 K팝 열풍 덕택에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아는 애들이 수업받으러 온다"고 변화한 모습을 소개했다.

'제8회 나의 꿈 말하기대회'에서는 뉴저지 갈보리무궁화학교(주말 한글학교) 8학년예 재학생인 유 영(14)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NAKS는 재미동포 1.5~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8년 전부터 매년 이 대회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각 지역 대표 18명 가운데 본선에 오른 8명이 경연을 벌였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 군은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전문 마켓 사업가가 꿈"이라며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익살스럽게 소개해 최고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인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는데 놀랐다"며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수 있었고, NAKS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총평을 내놓았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20개의 특강과 세미나가 이어졌으며 특히 NAKS는 20년 만에 표준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해 산하 한글학교들이 수준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기준을 제시했다. 모든 한글학교가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 뉴욕에서 한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시애틀의 한글학교에 전학가도 혼돈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한글학교 교사들 간의 간담회도 마련됐다. 교사들은 재단의 지원확대를 요구했고, 김 이사장은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NAKS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16대 신입회장으로 강용진(59·여) 씨를 선출했다. 이후 제2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 시상식과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역사문화 퀴즈대회,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 수여식이 열렸다. NAKS는 늦은 밤 지역협의회 대항 장기자랑대회를 끝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30차 학술대회의 막을 내렸다. **장**

위싱턴 = 성혜미 연합뉴스 기자



◀ 7월 28일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교사들은 재단의 지원확대를 요구했고, 김 이사장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30주년 학술대회를 기념해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들에게 일일 공로패를 주었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명박은 대통령은 7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관하면서 “위기일수록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배려하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때 기업투자 늘이고 대중소기업 상생 필요하다”

李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주관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세계가 주춤할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해주기 바라고, 기업의 입장에서 위기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는 세계 모든 나라가 지지부진할 때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해줘서 우리는 회복이 빨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경기 부진과 관련해 “너무 지나친 위기감은 내수 부진으로 갈 수 있고 내수가 위축돼 점점 더 어려워지면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투자해줬으면 좋겠고, 여유 있는 기업들은 모두 국내로 휴가를 가서 내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종합상사들에 대해서는 “종합상사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자상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시중은행들에 대해 “불경기가 되면 기업 재무제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대출

해주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출 진작을 위해 이번과 유사한 성격의 회의를 소집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금년 초부터 수출 여건이 어려워 것으로 예견했었다. 두 번째 회의인데 비상상황에 대응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에 회의를 했고 그때부터 세부적 대책을 세워 추진했어야 하는데 지금 늦었다”면서 “이렇게 할 것이면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해도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대통령 주재로 회의하는 이유는 지금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 “전체 제도 개선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에 관한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해 그때그때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TF를 만들어서라도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는 “은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조파업의 자제를 요청했다. 가뜰이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미국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주체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협력해야 할 상황에 비교적 사정이 나은 노조가 파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활기를 띠고 사기충천해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자제해 달라는 주문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은행에는 서민 금융을 더욱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가게 대출을 조이면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더욱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참]**

2만 불 소득-5천만 인구 선진국 진입 확인

우리나라가 지난 6월 23일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 명을 갖춘 '20-50클럽'에 가입했다. 20-50클럽이란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뜻하는 말.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소득 기준이며, 인구 5천만 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26번째로 인구 5천만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 한국(2012년) 등 7개국뿐이다.

술한 전쟁과 기아, 파괴의 역사를 딛고 일어난 질기고 강인한 한민족의 생명력을 바로 보여주는 증표다.

20-50클럽 가입은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럽 국가들은 일단 2만 달러, 5천만 명의 벽을 넘은 이후 이 수준을 대부분 유지했으며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성장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잠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해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우리가 지구상에 처음”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갈등도 있고, 분열도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가 어렵지만 지혜롭게 해서 위기를 넘기자”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지만 다행히 FTA로 경제영토를 세계에서 3번째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천500만 명에서 52년 만에 두 배로



우기종 통계청장과 지역주민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통계청 통계센터의 인구시계에 앞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돌파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앞서 클럽에 가입한 선진국과의 시점 차이 때문에 실질가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이미 2만9천997달러를 기록해 같은 시기 이탈리아(2만9천480달러)보다 높고, 일본(3만3천885달러)이나 프랑스(3만3천910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있다.

20-50클럽 진입은 대한민국이 국가의 절대 규모와 수준에서 모두 강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당분간 '20-50클럽'에 새로 진입할 국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주(인구 2천380만 명), 캐나다(인구 3천513만 명) 등은 소득은 높지만 낮은 인구성장률을 감안하면 인구 5천만명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중국(4천383달러), 인도(1천46달러), 브라질(1만717달러), 러시아(1만351달러), 멕시코(9천166달러) 등은 인구 규모는 크지만, 이 많은 인구의 소득을 모두 끌어올려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한국의 20-50클럽 가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이 강국으로 올라선 최초의 사례다. **[참]**



중국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입교식

일시 : 2012년 7월 16일(월) 장소 : 세향관 주최 : 재외동포재단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재외동포재단은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5주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사진 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2012년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조선어교원 초청연수'를 실시했다(사진 우).

“한글 교수법 강화에 주력, 모국 체험이 수업에 큰 도움”

CIS · 조선족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은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주간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를 초청해 한국어 집중연수를 실시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조선어교원을 초청해 한글 집중연수 및 모국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참가한 교사들은 “한국어 교수법 심화교육과 모국문화 체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초청 연수는 민족교육 환경이 열악한 CIS 및 중국지역 한글학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현지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 한글학교 한국어교사 가운데 이전에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CIS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에는 러시아 8명, 우즈베키스탄 14

명, 카자흐스탄 9명, 우크라이나 3명,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각 1명 등 6개국 한글학교 교사 36명이 참가했다.

초청된 교사들은 약 한 달 동안 한국어 교수법, 수준별 한국어 학습 등 한국어 집중연수와 모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민요, 종이접기, 우리 춤 등 전통문화를 익히고 서울과 여수 순천, 경주 및 용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연수 기간에 개최된 여수 엑스포를 견학하면서 모국의 발전상을 실감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이번 연수를 통해 CIS 한글학교 교사들이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현지에 돌아가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 보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사들 수업이해 빨라 '교수법 노하우 교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강의동에서 진행된 한국어 발표수업



를 다 나갈 수 있었다”며 “가르치는 강사 분들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수업 및 체험학습 등에서 통역을 맡은 카자흐스탄 주크라 씨는 “연수를 받는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을 비롯한 정규학교에서 학과를 맡고 있거나 보충수업을 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1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수업이 끝나면 휴게실로 몰려들어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하거나 자신은 현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등 서로 간에 수업 노하우를 교환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수업뿐 아니라 교사 간에 노하우도 나누었다. 서로의 입장들이 비슷해서인지 금방 친해진 것

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 발레리아 선생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며 ‘편지쓰기’에 대해 발표했다.

“편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편지, 안부편지, 연애편지, 위문편지...” 이 선생은 수업 전에 가요를 트는 등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강의에 빠져들게 했다. 서툰 한국어지만 편지의 종류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영상자료를 곁들인 다채로운 수업이었다.

연수기간 동안 교사들은 한국어 실력에 따라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서 한국어 학습 및 교수법 강의를 들었다. 중급반에서는 문장론, 한글수업의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이어지고 있었다. 연수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목표했던 진도

이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중급과정 선생들의 한국어 발음은 고려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눈치 채기 힘들 정도로 한국인과 비슷했다.

“다들 10년 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났다. 말은 쓸수록 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러시아에서 온 조 엘레나 씨가 말했다.

고려인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CIS 지역에서는 교사 월급이 매우 적어서 남성이 하는 직업으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CIS 한국어교사들은 일주일에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우리춤 배우기, 한국음식 만들기, 종이접기, 민요 배우기 등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 발레리아 교사가 ‘편지쓰기’란 제목의 학습교안을 가지고 초청 교사들이 모의수업을 펼치고 있다.



CIS지역에서 참가한 교사들이 모국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여수 엑스포를 견학했다. 참가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탄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을 배우면서 교사들은 면면히 내려온 민족 정서를 익혔다.

CIS 교사초청연수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엘도스 한글학교에서 연수에 참가한 김울가 교사는 “한국인이면서 왜 카자흐에서 태어나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괴롭기도 했으나 교사가 돼 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재단의 초청 덕분에 꿈에 그리던 모국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한국어도 심화시킬 수 있었다. 돌아가서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족교육’ 지키는 조선어 교원 환대에 감사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조선어교원 초청연수’를 오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재단이 최근 중국 현지 조선족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수에는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요령성 등 동북 3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어교원 42명이 참가했다.

김경근 이사장은 “2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조선족 청소년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유지·계승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는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연수에서 참가한 교사들은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서울 청량초등학교 등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수법을 습득했다. 또, 한국의 역사 및 다양한 문화 체험 시간도 가졌다.

김 이사장은 “조선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고, 특히 민족 언어로 수업하는 민족학교로도 유일하다”며 “최근 조선족학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현존하는 조선족 학교에서도 조선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모든 교원들이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조선족 교원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과거 10여 년간 중국지역 민족학교 지원의 일환으로 정보화기자재(컴퓨터, 프린터 등)를 지원해 왔으며, 중국지역 조선족 청소년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유지·계승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7월 16일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펼쳐진 중국 지역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입소식에서 참가자들은 “교육 연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많은 것을 배워 돌아가 조선족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열의를 불태웠다.

조선어 교육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교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이 적은 것이 큰 문제”라며 “민족 교육이 위기 상황이지만 조선족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조선어 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3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도 있었다. **▶**



중국 조선어 교원 초청연수 참가자들이 서울시내 탐방을 하고 있다. 사진은 경복궁 견학에 나선 조선어 교사들.



CIS지역 한국어 교사들은 연수기간 중에 한양대학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황 바채슬랍 키르기스스탄 비취객한국교육원 교사



한류 열풍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한국산 제품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고 코리안 드림도 생겨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이 늘어나고 있다. 키르기스 국립대 동양학부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고려인뿐 아니라 현지인에게 복잡한 한국말과 문법을 가르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 이번에 문법 수업도 체계적으로 받고 다양한 교수법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 이네사 우즈베키스탄 세종한글학교 교사



학생 중 40%가 현지인일 정도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 우즈베크의 청소년들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한다. 한류 열풍의 덕분에 고려인들도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

졸업생들이 배운 한국어를 활용해 한국 유학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고 소식을 전해올 때 보람을 느낀다.

학교 초창기인 93년부터 교단에 섰지만 그동안 가르쳐온 방식이 제대로인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확인할 수 있었다.

남영선 중국 념안시 조선족중학교 교사



조선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후대에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면서 항상 모국에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어떤 교수 이념과 방법을 도입하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동포재단의 초청으로 제대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모국의 초청으로 연수를 받게 된 것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에게 선망을 불러 올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15일간의 학습을 통해 선진적인 교수법을 배웠다. 돌아가서 이 교수법을 도입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다른 지역에서 온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있을 수 없다.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교단에 서온 노하우를 서로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임레나·임나타샤 우크라이나 아끼모브까 한글학교 교사



한국 선교사에게서 한국어를 배워 교사가 됐다. 자매가 같이 교사로 활동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을 묻고 배운다. 한글학교에는 나이 먹은 30~40대 고령인 학생도 있다. 한류 열풍 등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늘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는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러 온다. 현지인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과 역사탐방 덕분에 이제는 돌아가서 제대로 한국과 한국어를 가르칠 자신이 생겼다.

도룡숙 중국 연암소학교 교사



보름 동안 재외동포재단의 따듯한 보살핌과 열과 성의를 다해 학습을 진행해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감사드린다. 더운 복날 배우느라 수고한다며 삼계탕까지 준비해준 성의는 더욱 잊을 수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역사에서부터 최신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현지 초등학교 방문 때 본 훌륭한 시설과 다양한 교육방법은 부럽기도 했다. 청와대 사랑채, 경복궁, 국립국악원 등 여러 곳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전통도 알게 됐다. 특히, 여수 엑스포 관광은 세계화로 나아가는 한국의 발전모습을 실감할 수 있어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줬다.

송련희 중국 계동 조선족중학교 교사



“항상 수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배우는 아이들도 교사에게 감사해한다”라고 조언해준 중국어를 워낙 잘하시던 임대근 교수님, “간절히 바라면 꼭 이루어진다”며 교육터전과 삶의 참뜻을 되새겨주신 마술강사 김택수 교수님, 학생들이 글짓기를 순식간에 사랑하게 되는 요령을 가르쳐준 강용철 교수님, 전통유희와 함께 전래노래를 다 같이 향유하면서 신났던 노래특기를 가지신 전송배 교수님 등 15명의 강사분들 덕분에 앞으로 교육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겠다. **장**

이민자의 정착 돕고 자녀 정체성도 키우는 '로테르담 한인학교'



로테르담 한인학교는 최근 시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으로 학교를 옮겨야 할 위기에 몰렸으나 한인사회 후원과 이기철 대사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현재 장소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올해 2월 18일에 열린 로테르담 한인학교 졸업식.

네덜란드에는 2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입양인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민자와 주재상사원 그리고 유학생이 한인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암스테르담 800여 명, 로테르담 700여 명, 그리고 라이덴과 덴 하그에 50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로테르담에 있는 '로테르담 한인학교'는 한인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의 중심이면서 이민자들이 현지에 뿌리 내리는 일도 돕고 있다. 1996년 개교한 로테르담 한인학교는 현재 16개 학급에 120명이 재학 중이며, 교민과 주재원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의 산실이자 현지인 대상의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국 문화 홍보 역할도 하고 있다.

주말학교 수업은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 한글이 중심이나 네덜란드어와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과 시

민권 발급이 엄격해지면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과거에는 영어도 공용어로 같이 쓰였다. 그렇기에 이민사회에 빨리 적응하려면 네덜란드어와 영어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영 한인학교 교장은 "장기거주 가정의 자녀와 국제 결혼한 가정 및 입양인 가정의 자녀 등 한국어보다 네덜란드어나 영어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한국어반에서는 한인학교 교재로 개발된 아동용 한국어, 한국어 회화, 한국의 문화 등을 사용하여 한국의 역사, 지리, 전래동요 및 민속놀이 등이 포함된 수업을 펼치고 있다.

한인학교는 매년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을 아동을 돕는 기관에 후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학부모들이 음식을 만들어 와 판매하기도 했는데 한국어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현지인이 덕분에 전통 한식을 맛보기도 했다.

최근 로테르담 한인학교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해오던 시 정부가 긴급 재정을 위해 50% 지원액 삭감을 통보해 오면서 학교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50% 지원금에 해당하는 연간 2만 유로를 모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 소식을 듣고 신임 이기철 주 네덜란드 대사가 6개월간 해당 시청과 임대기관인 아메리칸 스쿨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중재를 통해 학교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통지를 받아냈다.

아메리칸 스쿨이 연간 임대료를 2만9천 유로로 낮추고, 로테르담 투자청이 이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기철 대사는 로테르담시 투자청장과 아메리칸 스쿨 교장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임차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인학교가 결국 로테르담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기업이 로테르담을 기피해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며 시 당국과 아메리칸 스쿨 측이 융통성을 발휘해 협조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시 당국도 어려운 처지여서 결국 이전 외엔 방법이 없다고 거의 포기했었다"면서 "그러나 신임 대사가 적극 나서서 대신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고 고맙다"고 밝혔다. **▶**

행복이 성공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
□ 2003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11차 대회가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는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동포 여러분의 국적을 떠나 한민족 경제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SNS가 대세인 시대라도 경제활동에는 상대와 눈을 맞추고 얼굴을 맞대어 생기는 교감과 신뢰가 기본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전 세계 한상들이 모이는 한상대회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상대회를 통해 해외 한상들과 국내기업간의 만남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의 성과를 보면 총40개국에서 재외동포를 비롯하여 4천10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대일 미팅 620건, 유통바이어 상담 334건으로 부산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돈으로 환산하여 267억 원이라고 합니다(부산발전연구원 조사). 모이고, 연대하는 힘이 이렇게 큼니다.

한상 대회는 국내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무역 상담을 통해 거래 성사되기도 하고 큰 계약이 체결되어 국제 무역이 시작되기도 하는 무역의 장입니다. 또한 재외 동포 간 국내기업 또는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위해 올해 한상 대회에서 서울시는 총350개의

기업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유망 산업인 IT 산업과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문화산업 콘텐츠 부분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또한 서울시의 투자 유치 환경을 설명하는 투자유치설명회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생생한 정보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올 '2012 서울 한상 대회'를 통해서도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상 여러분께서는 물론, 중소기업 매출 향상과 서울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하겠지요.

제가 '천개의 직업'이라는 책에서도 말했듯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꿈과 많은 내일이 있지요. 저는 한상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시든 그 많은 꿈들을 잘 발견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한상 여러분, 그리고 꼭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정든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이 아닌 외지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신 여러분은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아니,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천330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를 위해 부탄 왕국은 구체적으로 4가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회,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경 보호, 셋째는 문화의 진흥, 넷째는 좋은 통치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삶을, 정책을, 국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지면이지만 이 글을 통해 한상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행복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 간절히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빚게 될 그 날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란 이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한**

작품성 높아진 동포문학가의 등용문

‘제14회 재외동포문학상’ 응모 1천206편 중 수상작 30편 선정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를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동포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동포문학의 등용문으로 불리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제14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0편을 선정했다.

시인 신경림, 신달자, 소설가 김형경, 복거일, 권지예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번 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작품 수준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며 "내용도 과거에는 주로 이민의 애환을 다룬 이야기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등 동포문학이 문학의 한 장르로 성장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성인부문 시, 단편소설, 수필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부문 글짓기를 공모해 총 38개국에서 1천206편의 참가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을 결정했다.

성인 시 부문 대상은 '글썩 아우푸'의 서미라(독일), 단편소설 부문 대상은 '데이비드의 꿈'의 조성원(캐나다), 수필 부문 대상은 '둥근달 속의 캥거루'의 장석재(호주)에게 돌아갔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에서는 '저격능선 전투보다 먼저 알아버린 상감령'의 박준상(중국)과 '중간선'의 신유니(중국)가 각각 중·고등부,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태국 치앙마이한글학교, 호주 시드니한인천주교한글학교와 독일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가 '한글학교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응

모작품수만큼, 재외동포 문학상이 재외동포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작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수상자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또, 수상작들을 책으로 엮은 '재외동포 문학의 창'은 올해 하반기에 출간돼 국립도서관 재외공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본 공모를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창**

수상자 공고

▶ 시 부문

대 상 : 서미라(독일)
 우수상 : 전희진(미국), 연미나(미국)
 가 작 : 금혜정(싱가포르), 김성만(중국), 전찬영(캐나다)

▶ 단편소설 부문

대 상 : 조성원(캐나다)
 우수상 : 서진욱(미국), 이지현(일본)
 가 작 : 김성욱(중국), 고성복(캐나다), 이강천(미국)

▶ 수필 부문

대 상 : 장석재(호주)
 우수상 : 왕마리(미국), 한경남(캐나다)
 가 작 : 김수정(영국), 정복리(중국), 김영화(중국)

▶ 중고등 부문

최우수상 : 박준상(중국)
 우수상 : 다이애나 헤어(미국), 손예원(중국)
 장려상 : 노재덕(독일), 서기준(일본), 정소진(중국)

▶ 초등 부문

최우수상 : 신유니(중국)
 우수상 : 김정원(중국), 이다은(태국)
 장려상 : 이상우(호주), 김성희(일본), 고종현(중국)

▶ 한글학교 특별상

1위 : 치앙마이한글학교(태국)
 공동2위 : 시드니한인천주교한글학교(호주)
 프랑크푸르트한글학교(독일)

수상자 소감

서미라(독일) 시 부문 대상



독일에서 생활하다보니 우리말과 독일어를 섞어 쓰는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 처음 시작한 글쓰기는 이민 생활의 갈등, 그리움 같은 느낌을 일기처럼 적는 것에서 시작했다. 글쓰기 놀이는 타향 살이에 위로가 됐고 어릴적 꿈꾸던 문학의 열망을 다시 찾게 해줬다. 3년째 재독한국문인회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글쓰기의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왔다.

이번 수상으로 가족은 나의 최고 응원자들이 되어 주었다. 한인 사회에도 시를 써온 것을 자연스레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신만을 위해 쓰는 소극적인 글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삶에 대한 시를 쓰고 싶다. 언젠가는 내 시집을 내는 꿈을 꾸면서.

조성원(캐나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남의 나라 말이라 제 때 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국어만큼은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이란 인증이 스스로에게 필요했다. 동생이 선물한 노트북으로 뭔가 보람된 일을 해보자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한인신문 여기저기에 문학상 수상자 이름이 소개되면서 주변으로부터 과찬을 받았다. 문학을 전공하거나 글쓰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좋아하는 영화와 글쓰기를 접목해보고 싶다. 이웃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글쟁이가 되는 게 소망이다.

장석재(호주) 수필부문 대상



이민 선물로 후배로부터 원고지 1천 장을 받았다. 이것을 다 쓰면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이라는 충고와 함께, 사보에 수필 몇 편 발표했던 것을 기억한 후배의 선물이었다. 얼마 전 이 원고지가 다 떨어졌고 후배의 예언(?)대로 수필 대상을 받았다. 정겨운 후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수상소식에 서울의 누나가 용돈을 보내왔다. 환갑의 나는 그만 어린아이가 됐다.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써온 글들을 다시 정리하고 보듬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민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책 한권을 남겨주고 싶다. 다가오는 50주년 기일, 아버지 영전에 이 상을 드린다. 곧 미수(米壽)를 맞이하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동남아 한상대회 · 아시아한인 총연합회대회 발전 모색

제7회 동남아한상대회 겸 아시아한인총연합회대회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 동남아시아 7개국 10개 한인회장과 아시아한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열렸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회에 참가해 아시아지역 한인회와 한상(韓商)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상대회와 아시아한인총연합회대회에는 인도네시아 승은호 회장을 비롯해 필리핀 이원주 회장,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한인회 등 7개국 전·현직 한인회장 10명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한상인 인도네시아 송창근 회장을 비롯한 동포기업인 약 20명 등 80여 명이 모였다.

김 이사장은 6일 대회 인사말에서 “한인회의 역할이 각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한인동포들과 한인회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한인동포 및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재단과 각국 한인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회를 마친 뒤 김 이사장은 울란바토르 MK School과 몽



제7회 동남아한상대회 겸 아시아한인총연합회대회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 동남아시아 7개국 10개 한인회장과 아시아한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열렸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한인사회 및 한상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골 토요한글학교를 방문해 한글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한글학교 운영 현황 파악과 한글학교 관계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참석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회에 참석하고 한국어교육원 및 한글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재외동포재단 김정수 기획이사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회에 참석하고 한국어교육원 및 한글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

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소개 및 CIS지역 현장 교사들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문한 연수회 자리에서 김 이사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고령인 차세대들에게 중요

함을 강조하며 “재단에서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자 종합검진

재외동포재단은 7월 16일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의 협력을 받아 '2012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참가자 36명 전원에게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교사들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한양대학교 측에 요청을 했고 동포재단과 MOU를 맺고 있는 한양대학병원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뤄졌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황 바체슬랍 교사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궁금했는데 무료로 검진을 실시해주어서 무척 고맙다”며 “현지에서는 검진 비용도 비싸지만 한국처럼 첨단 장비도 없다”며 재외동포재단과 한양대병원에 감사해했다.

중국 한상네트워크 실태 파악

김중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중국지역의 한상네트워크 현황파악을 위해 7월 1일부터 6일까지 현지를 방문했다.

김 이사는 중국 3개 도시인 상하이, 칭다오, 뎬진의 한인회 및 주요 한상단체, 한인기업, 동포밀집지역 등을 방문하고 현지 한인 사회 및 한상들의 의견 청취를 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 간담회 자리 등을 통해 금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세계한상대회를 적극 알리고 중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중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중국지역의 한상네트워크 현황파악을 위해 7월 1일부터 6일까지 상하이, 칭다오, 뎬진 등 주요도시의 한인단체를 방문했다. 김 이사는 상해한국상회를 방문해 동포기업의 현황 및 고충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동포사회에 긍정적 영향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재외 동포의 경제활동 성과와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FTA가 동포사회의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동포재단의 위탁을 받은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 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국이 FTA를 체결한 8개국(미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독일, 칠레, 페루, 스위스)의 동포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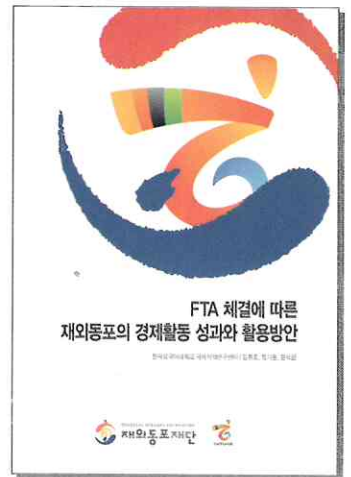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FTA 체결이후 동포사회의 결속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53%가 '예'라고 답해 FTA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으로 FTA 체결이후 재외동포기업들 중 투자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5%를 상회한다는 점은 FTA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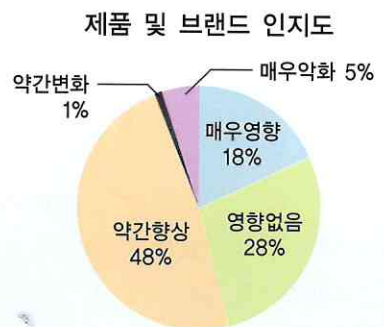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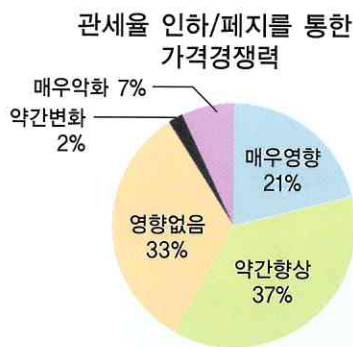
FTA 체결과 재외동포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재외 동포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윈-윈 효과추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내기업들의 경우 해외 진출에 있어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은 재외동포기업들이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국내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기업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연구는 재외동포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FTA 홍보활동과 재외 동포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한상 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제품 인지도





일상의 번잡은 잊어라 **담양의 여름**

담양은 걸어서 즐기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짙은 초록빛을 발산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쏟아지는 햇살이 대나무 마디마디에 빛나는 대숲, 아름답리 나무들이 준비한 관방제림 등 녹색 앞 호드러진 나무와 숲길이 너무 좋다. 한여름, 담양으로의 여행길은 초록 세상에 묻혀 호젓한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정이다.



대나무 고장으로 유명한 담양은 어디를 가도 온몸에 초록물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초록의 세상'이다. 지독하게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걸출한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푸른 신록을 가까이서 만난다. 담양은 죽향(竹鄕)이라는 말에 걸맞게 어디를 가나 대숲이 산을 이루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대숲을 거닐다 보면 대나무의 은은한 향내와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일상에 지쳐 있는 심신에 청량감을 불어 넣어준다.

담양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보물 같은 숲이 세 군데나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산그늘 짙은 마을마다 병풍처럼 드리우고 있는 대숲, 그리고 사시사철 언제 걸어도 좋은 관방제림이다

이 가운데 담양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다. 담양읍에서 시작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장관은 순창과의 경계 지점까지 이어진다. 초록 물결로 뒤덮은 시원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의 드라이브는 해변 드라이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한다. 초록 터널에 갇힌 도로에 들어서면 한낮에도 어둡하다. 길 양쪽으로 울퉁불퉁 돌출된 불그스레한 나무들이 나열하듯 서있는 모습에 차의 속도는 저절로 줄어든다.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가로수 터널을 달리다 보면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짙은 초록빛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담양읍을 가로지르는 담양천변에 놓인 관방제림은 요즘 같은 여름철 담양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남산리 동정마을에서 천변리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조성된 방제림은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더위를 가리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준다. 관방제림의 산책길은 짧지만 행복하다. 수령 300년이 넘었다는 느티나무와 푸조나무, 팽나무 등 거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오솔길은 두서너 명이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대한 나무 둘레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준다.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수만 177주에 달한다.

등산을 좋아한다면 영산강 시원지인 가마골이나 금성산성이 제격이다. 소설과 영화로 잘 알려진 '남부군'의 배경으로 유명한 가마골은 울창한 수림, 기암괴석과 수려한 계곡이 어우러진 담양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명소다. '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많다'고 해서 가마골로 불리는 이곳에는 영산강의 시원인 용소, 용소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원정과 출렁다리, 천년고찰 용추사, 깊은 계곡 사이로 쏟아지는 용연폭포, 한국전쟁 때 빨치산 사령부가 주둔했던 사령관계곡, 야영장과 숲속의 집 등이 있다. 4km에 이르는 계곡은 경사가 완만하고 물살이 세지 않아 자녀와 함께 더위를 피하기는 그만이다.

금성산성은 무주의 적상산성, 장성의 입암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불리는데, 성곽에 서서 보는 담양호, 추월산과 병풍산, 그리고 산 앞자락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외남문(보국문)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산성 망루에 걸터앉으니 눈곱만큼도 지루하지 않은 담양호와 추월산 등 아름다운 풍경이 눈을 말끔히 씻어준다. 또한 시원한 산바람이 땀을 훑어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청량제처럼 시원하다.

담양 나들이에서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으로 꼽히는 소쇄원이다. 숲과 계곡, 그리고 정자.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소쇄(瀟灑)가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시원함'을 뜻하는 것처럼 소쇄원 한가운데 있자니 물소리, 새소리, 대나무 바람소리로 인해 마음이 청량해지고 절로 어깨가 들쭉어진다. 담양의 초록 세상은 상쾌할 뿐 아니라 마음을 정화해준다.

용추봉과 추월산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담양호다. 영산강 유역개발사업의 하나로 1972년 착공해 4년만인 76년에 장성호·광주호·나주호와 함께 준공했다. 호수 주변에 가마골, 추월산, 담양온천, 금성산성, 송학민속체험박물관 등의 볼거리가 있어 호반유원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에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식당이 있다. 일교차 큰 늦가을 새벽에는 담양호 상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추월산 단풍과 어울려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담양을 조선시대 대표적 문학인 가사(歌辭)의 산실이라고 한다. '한국가사문학관'에 들러 작품과 인물에 대해 알아본 다음 가사 작품이 탄생한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같은 정자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참**

- 1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숲을 찾은 한 가족이 짙게 드리워진 나무 그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 2 담양은 죽향이라 할 정도로 어디를 가나 대숲이 산을 이루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 3 전남 담양군 용연 담양호 상류에서는 새벽에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추월산과 어울려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4 식영정은 서하당 김성원이 그의 장인 임역령을 위해 지은 정자로, 조선 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인 정철이 성산에 와 있을 때 머물렀던 곳 중의 하나이다. 『서하당유고』의 기록에 따르면 명종 15년(1560)에 지었다고 한다.
- 5 정자가 그치고 7월 말부터 광주·전남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에서 시민들이 부채질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2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

국내 대학생과 재외동포 대학생이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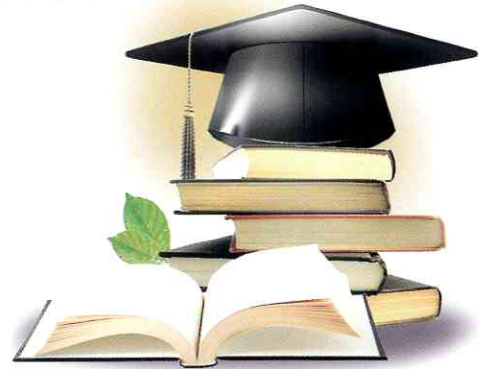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관심을 높이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2012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에는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한민족 대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동연구(최대 3명)인 경우, 모든 참여자가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논문주제는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사회, 한민족 정체성 함양, 모국과의 협력강화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응모 논문은 타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 논문이어야 하며 응모 논문이 표절작으로 판명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논문작성요령, 제출절차 등 논문응모



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OREAN.NET(www.korean.net)을 참고하고 논문 제출기간은 5.9(수)~8.24(금)까지이며, 수상작은 10월중 개별통보 및 KOREAN.NET에 공지한 뒤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논문집을 발간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대 상(1편)** : 외교통상부 장관 상장 및 장학금 400만 원
- **우수상(2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장학금 각 200만 원
- **장려상(2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장학금 각 100만 원

독자후기 _ 이명호 일본 동경

저는 일본에 90년대 중반에 건너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뉴커머 기업인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에 건너와 살면서 차별을 경험한 재외동포 분들과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국살이의 설움은 다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한국과의 거래도 늘어나는데 정보도 부족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재외동포재단의 코리아넷에 들어갔다가 '재외동포의 창'을 읽었습니다.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당장 필요한 비즈니스가 없더라도 전 세계에 나가서 활약하는 한인 기업인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한국을 떠나 밖에 나와 살면서 종종 우리끼리도 잘 못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못쳐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막상 발 벗고 나선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 터지요. 그래서 모국에서 매년 기업인을 초청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준다니 뜻 깊다 싶습니다. 해외로 이민 온 사람은 수구초심마냥 나이를 먹을수록 고국이, 고향산천이 그리기 마련입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통해서 모국 소식도 듣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기업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www.hansang.net

제 11차 세계 **한상** 대회

THE 11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2. 10. **16**(Tue) - **18**(Thu), 서울 코엑스 **coex**

Global Korean Strengths,
'Hansang Network'

글로벌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

- |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 | **주관** |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MBN
- | **후원**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재외동포재단 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